

2019년 3월 기도편지

짜이며시! 세계지붕의 나라 네팔다일공동체 입니다.

#새로운 KCOC 단원

찬바람이 불던 카트만두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봄소식을 알리는 포근한 공기와 함께 네팔다일공동체를 찾아온 새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2월 26일자로 네팔에 들어온 KCOC 단원들입니다.

KCOC는 지구촌 곳곳에서 활동하는 국제개발 NGO의 협의체입니다. 다일공동체에서도 네팔을 포함하여 캄보디아, 탄자니아, 우간다로 청년봉사단원을 파견하였습니다. 각 나라로 파견된 청년 봉사단원들이 1년 동안 파견국가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네팔다일공동체에는 두 명의 단원이 들어왔는데요, 다일공동체와 KCOC에서의 교육이 끝나자마자 네팔에 날아온 남다른 열정과 포부를 가진 두 단원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김채희 간사님 “하나님의 사역인 네팔다일공동체에 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년간 저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성실히 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 살아가기를 실천하겠습니다.”

황성현 간사님 “네팔에 섬기러 오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네팔에서의 1년 동안 겸손한 마음가짐과 순종하는 자세로 모든 일에 항상 열정적으로 임하고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네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단원들이 1년 동안 네팔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곳에서 늘 건강하고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여 복음의 현장에서 영육으로 성장하는 황성현(싸걸)/김채희(더야) 두 간사님들이 되기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채희 간사님(더야)



황성현 간사님(싸걸)

#다일 씨퍼나 고아원 공사현장

봄이 성큼 찾아온 신두팔축의 따뜻한 소식입니다. (주)이공오공에서 호스텔의 설비공사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4천7백만원의 후원금을 후원하여 주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신 후원자분들 덕분에 고아원의 공사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로 다일씨퍼나고아원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의 센 바람과 여름의 역센 빗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고아원 앞뒤로 옹벽(축대)을 쌓고 있습니다. 앞쪽엔 옹벽을 다 쌓고, 뒤쪽도 이제 반이나 쌓았습니다. 따뜻한 공기에 인부들도 고아원 내부시설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위

생을 책임질 사위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타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신두팔축의 멋진 자연경관을 보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탁 트인 창문에 맞는 틀과 유리를 끼워 넣고 있습니다.

4월에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사용할 침대와 책상, 식당의 식탁 등 가구를 주문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주)이공오공을 통해서 인테리어와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였는데 고아원에 큰 용량의 전기를 끌어오는 것과 암반수를 뚫어서 생수를 얻는 큰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상처가 꽃이 되고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예쁜 정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쁜 꽃과 나무가 돌과 어우러지는 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마지막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과정 아이들

네팔은 12학년까지의 정규교육과정이 있습니다. 10학년을 넘어 11, 12학년을 마쳐야만 대학교 진학이나,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과정을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2과정(11,12학년)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비싸서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 과정을 밟게 될 아이들이 학비가 부족하여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과정 아이들을 후원할 예비 된 후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해주시고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



가이스 따망(19세)



경가 카와스(17세)



요한 따망(17세)



언전 스투스타(17세)



람 쩌드러 머걸(17세)



엠브리따 라나(18세)

주님의 간섭하심이 절실한 네팔입니다. 네팔다일공동체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기도제목

1. 네팔정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나라 되도록
2. 빈민촌의 가난한 아이들이 밥퍼와 빵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3. 결연된 아이들이 큰 꿈을 갖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4. +2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나가 네팔에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5. 신두팔촉의 다일꿈퍼고아원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4월 18일 개원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6. 다일꿈퍼고아원에서 병원까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어 이동할 수 있는 차가 구해지도록
7. 한국에서 파견 된 한국인 직원과 KCOC 단원,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
힘껏 기도해주세요

후원계좌 : 국민 467701-01-299245
예 금 주 : (사) 데일리다일
다일공동체 홈페이지 : www.dail.org